# 레바논 사태, 돌파구 마련되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으로 중동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9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 도착,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제사회 압력 점증…라이스 美 국무 '다시 중동으로'

## 평화군 창설 등 내달 2일 안보리 결의안 채택 가능성

이스라엘에 레바논내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중동 분쟁 해소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던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에 부딪히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 시작, 이스라엘·헤즈볼라간 분쟁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워싱턴에서 중동사태에 대해 논의, 이번 주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폭력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라는 아랍 및 유럽 동맹국들의 압력에 직면,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가 국제 평화유지군을 투입해 레바논 군당국이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 남부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윤곽을 잡아놓았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또 별도의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중동을 다시 방문, 매우 집중적인 교섭에 나서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블레어 총리와 회담한 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세력을 난타할 시간을 단축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느낌이 감지되고 있다고 예루살렘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1만5천~2만여명의 국제평화군을 구성, 레바논·이스라엘 국경과 레바논·시리아 국경에 배치해 헤즈볼라 세력의 재무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은 이번 주초 회의를 열어 어떤 국가들이 평화유지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국제평화유지군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빠르면 2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 헤즈볼라 "이 공격 강화할 것"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29일 이스라엘 중심부 도시에 대한 로켓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스랄라는 이날 헤즈볼라 TV방송을 통해 레바논 남부 접경지 지상전에서 이스라엘이 "심각한 패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계속해 민간인들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중심부 도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루트.예루살렘AP·AFP=연합뉴스

# "대포동 2호 北 영공서 폭발…완전 실패"

## 日 방위청 조사보고서 내달초 발표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는 발사대로부터 1.5㎞ 지점의 '북한 영공'에서 폭발, 수십㎞ 이내 근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언론이 30일 일제히 보도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다음달초 발표하는 조사보고서에서 대포동 2호의 "낙하 지점은 연안에서 수십㎞ 떨어진 북한 근해"라며 "발사는 완전한 실패"로 결론냈다.

북한 북동부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대포동 2호는 1단계가 신형 부스터(booster)이며 2단계는 노동으로 당초 400㎞ 가량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1단계의 연소는 40초 정도로 끝나고 2단계는 분리되지 않았다"면서 정상 가동시 연소시간이 3분 이상인 점에 근거, 발사는 완전한 실패로 결론냈다. 목표 지점에 대해서는 "태평양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정상적인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특정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나머지 6발은 모두 북한 남동부의 '깃대령'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돼 400㎞ 전후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의 종류는 속도와 연소 방식 등에 근거, 노동 2발, 스커드 4발로 결론냈다.

항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6발 가운데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것으로 보이는 신형 IRBM(잠수함 발사 중거리 미사일 개량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커드 가운데 "신형 스커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낙하 지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분석에 충분한 항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미사일이 있다"며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6발이 (직경) 몇㎞ 범위 안에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 포착한 미사일 항적 등 초기 정보에 미군이 지상레이더로 얻은 추가 정보를 포함, 분석한 결과를 방위청이 독자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내달초 공식 발표된다.

도쿄신문은 대포동 2호가 발사대로부터 1.5㎞ 이내 지점의 북한 영공에서 폭발, 곧바로 아래로 낙하했다는 견해를 미국측이 일본에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미 정찰위성이 미사일 파편의 일부를 확인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내달초 발표되는 보고서는 대포동 2호가 발사직후, 1단계 신형부스터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발했지만 실패에도 불구, 이번 발사로 얻은 정보가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 "고이즈미가 남긴 짐, 亞 외교 실패"

## 日 아사히, 사설서 통렬 비판

일본 유력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아시아외교 실패'를 통렬히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순발력 외교가 남긴 짐(負)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고이즈미 총리가 미·일 동맹 외교에 주력한 사실을 들며 "평화주의를 내건 일본이 대의 없는 이라크전쟁을 즉각 전면 지원한 것은, 반발을 누르고 자위대를 파견한 것과 함께 역사에 아픈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고이즈미 외교의 실패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관계였다"며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기초로 이웃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좌절된 것은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반발의 강도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고이즈미 정권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데 실패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웃나라인 한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고이즈미 외교는 '전략의 결여'라고 평했다.

또 "야스쿠니문제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아시아외교를 어떻게 바로잡을까"라며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야스쿠니의 쟁점화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나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 전망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고이즈미 외교가 남긴 최대의 '짐'의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 "8월까지 핵 농축 중단 안하면 제재"

## 5대 상임국 對이란 결의안 합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은 28일 이란 핵문제와 관련, 이란이 내달 말까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외교적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안보리 7월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날 오후 5대 상임이사국들간 협의를 거친 결의안 초안을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했다.

초안은 이어 이란이 오는 8월 31일까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는 안보리가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초안 내용 가운데 이란이 안보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재를 지향할 것'이라는 문구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콘고공화국, 46년만에 민주선거 중부 아프리카의 콘고민주공화국이 30일 오전 6시(현지시각)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지 46년만에 사실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대선과 총선 동시 투표에 돌입했다. 동부 중심 도시인 고마의 몇몇 투표소에서는 수십명의 주민들이 밤새 줄지어 서 있다 투표하기도 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북한과 얼굴 맞대는 직접 대화 필요"

## 美 민주당, 새 외교정책 제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이후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민주당은 2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새 외교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지사는 이날 민주당의 외교정책 비전을 밝히는 대국민 라디오연설을 통해 당면 대북 교착상태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직접대화 정책을 천명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노리는 리처드슨 주지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사이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4배나 늘렸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얼굴을 맞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우리의 외교를 밖에서 대행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은 물론 이란과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데다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미국내 손꼽히는 북한통으로 이날 민주당 라디오 연설에 대표로 나와 민주당의 새로운 외교정책 비전을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 배고픈 男, 뚱女 찾는다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체형을 보면 그 남자가 얼마나 배 고픈 지를 알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BBC 뉴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바이런 스와미 박사 등 영국 학자들은 61명의 남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배가 고플수록 여성의 곡선미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살이 많이 찐 여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학자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교내 식당에 들고 나는 남학생들을 상대로 얼마나 배가 고픈 지를 1~7까지 등급별로 분류해 다양한 체중을 가진 여성 50명의 전신 사진을 보여주고 반응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배고픈 학생들은 배부른 학생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여성들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미남·미녀 만나면 딸?

할리우드의 미남-미녀 커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딸 샤일로 누벨을 낳은 것은 진화론의 필연적 결과?

영국 정경대학(LSE)의 사토시 가나자와 박사는 졸리-피트 같은 매력적인 부모는 첫 아기로 아들보다 딸을 낳을 가능성이 26%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고 선데이 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각 성은 생존하기를 선택한다는 "진화 전략" 때문이라고 가나자와 박사는 설명했다.

가나자와 박사는 "육체적 매력은 유전성 형질이고 딸들은 아들보다 육체적 매력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모는 못생긴 부모에 비해 딸을 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좋교한 합격서적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내교 우리의 최고 강사진이 진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폰내의 교육학의 교수전은 하루, 이들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 입니다. 그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학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여야 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곽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마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강치욱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셨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생생한 수업강의를 원하는 시간·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수강가능!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곽내영 | 유아교육 임미선 | 미술 김성희
국어 최병해팀 | 영어 송 옥 | 수학 임대성
체육 김용호팀 | 공통과학 장영민팀 | 일반사회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매월 1일, 15일 개강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 모두 수강가능
◉2개월 종합반 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전용자습실 사용가능
• 정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사물함 무료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실력반 선별 맞춤 수강
• 매월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 형 법 조태엽 교수 |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 사 오수평 교수 | 영 어 오순아 교수 | 영 어 정보열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8월 1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 매일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 ◁◁
8월 1일 개강
오전반 9:2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을 치른 후 10:10부터 핵심요약정리와 모의시험지 해설강좌를 통해 최종 합격점검을 할 수 있는 강좌임
야간반 18:3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 치른 후 19:10부터 문제풀이 해설강좌 진행
" 원서접수 받습니다. "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청 앞 신일빌딩 뒤 / 지하철 도청역 8번출구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 - 김영
호남유일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T/ 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편입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편입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개강:8월 1일 ☎ 227-8088